

1.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becoming a member of Suwanee Full Gospel Church.
2. 오늘은 2월 성찬예배로 드렸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합시다.
Next Sunday is Holy Communion Sunda and Mission Sunday.
3. 2025년 1~2월 중 2025년 대심방 기간입니다.
기도제목 카드 제출해 주시고, 심방 요청을 담임목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ask for a New Year's Pastor's Visit during Jan- Feb.
4. 2월 십일조 기도가 진행됩니다. 시간의 십일조를 드림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 일시 : 2/11~13(화~목)
Let us offer the tithe of our time to God. Feb.11~13
5. 남, 녀선교회 월례회
• 여선교회 - 2/9(주일) 애찬후 • 남선교회 - 2/16(주일) 애찬후
Please pray for the men's and women's missionary groups.
6. 2025-2월 안내 및 헌금 봉사자 - 김샌디 권사
• 헌금봉사는 헌금기도자와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들은 10:15am 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hard work.
7. YOUTH 아이들의 연합을 위한 치킨 파티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장소 및 일시 : 2월 17일(월), 10 a.m , 교회
The YOUTH Group Chicken Party will be held on December 17(Mon), at 10 AM at the church.
8. 애찬표와 현화표가 성전 입구 게시판에 있습니다. 자원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2구역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주(2/16) 3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까.
Donation sign-up sheets for our Lunch Ministry and Floral Offering are on the bulletin.
9.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 2/16(주일) : 콜롬비아순복음교회 제직임명예배
• 2/24(월) : 동남부지방회 총회, 스와니순복음교회
Let us pray together for the revival of the church.

2025년도 후원 선교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 필리핀 - 아시아중앙교회(ACC, 윤필립 선교사)
 2. 일본 - 고베 그레이스하모니교회(신동훈 선교사)
- * 자세한 기도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대표기도, 헌금기도, 안내 & 헌금 봉사

날짜	대표기도	헌금기도	안내 & 헌금봉사
2/16	이재영 목사	신승란 권사	김샌디 권사
2/23	정용훈 목사	김수자 권사	김샌디 권사
3/2	신해승 장로	신승란 권사	박제니 집사

2025 성령님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UP GO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Song of Songs 2:10)



예배시간 안내

새벽예배 Morning Prayer Service	화 ~ 금 6:00 AM
주일예배 1부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위성) Sunday Service, 1st	8:30 AM
주일예배 2부 Sunday Service, 2nd	10:40 AM
금요성령대망회 Friday Service	8:00 PM
주일학교 Sunday School	11:00 AM
Youth 예배 Youth Service	매월 2,4째주 11:00 AM
방송설교 Broadcast	(YOUTUBE - 유튜브 생방송) (주일, 새벽예배 Every Sunday, Mornig Prayer Service)

스와니순복음교회 7대 핵심가치

- ① 오종복음과 삼중축복, 절대긍정 절대감사를 통한 불변의 진리
- ② 순복음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변하지 않는 사랑
- ③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있는 믿음
- ④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함
- ⑤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길
- ⑥ 모든 사역의 기반이 되는 끊임없는 기도
- ⑦ 성령충만을 통한 능력과 복음전파 (전도, 선교)

2025년 스와니순복음교회 7대 실천사항

- ①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 ②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헌신과 봉사를 이루자
- ③ 확실있는 믿음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내는 모범을 이루자
- ④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계속되는 도전을 이루자
- ⑤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의 길을 위해 훈련하자
- ⑥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통한 주님과와의 소통을 이루자
- ⑦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이루자

3268 Smithtown Rd Suwanee GA 30024
TEL : 770. 945.4447 C.P : 630.746.3197

www.suwaneechurch.org

담임목사 정용훈 / Senior Pastor Yong Hoon Jeong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로 부르심 Invocation	다함께 Altogether
찬 송 Hymn	8장 Hymm No. 8 거룩 거룩 거룩 (4절)	다함께 Altogether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Altogether
찬 송 Hymn	찬 15장 (통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Altogether
대표기도 Prayer	정래열 장로 Elder. R. Y. Chong
함께 드리는 찬양 Anthem	비 준비하시니	다함께 Al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부 - 신명기(Deut.) 1:30~33 2부 - 예레미야(Re 33:1~3)	다함께 Altogether
설 교 Sermon	1부 -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 2부 -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 - 번제 A burnt Offering as a Pleasing Aroma to Yahweh	1부 - 이영훈 목사 Rev. Y. H. Lee 2부 - 정용훈 목사 Rev. Y. H. Jeong
성 찬 Communion	찬 229장(통 281장) 아무 흠도 없고	담임목사 Senior Pastor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박제니 집사 Deaconess. Park
헌 금 송 Offering Praise	다함께 Altogether
광 고 Announcement	담임목사 Senior Pastor
주기도송 The Lord's Prayer	주기도송(635) The Lord's Prayer	다함께 Altogether
축 도 Benediction	담임목사 Senior Pastor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

Chart Rae

Chords: G, C, D, C, D, Em7, C, Dsus4 D7, C, G, C, Dsus4 D7, G, D, Em7, C, G, Am7, D7, G, D, Em7, C, D, G

Lyrics:
 1. 우 리 주 는 위 대 하 며 능 력 이 많 으 시 도 다 그 의
 상 한 자 들 고 치 시 며 상 처 를 싸 매 시 도 다 별 들
 5. 지 헤 무 궁 하 며 인 자 는 영 원 하 도 다
 의 수 를 세 시 며 이 름 을 불 이 셧 도 다
 9. 그 가 구 름 으 로 하 늘 을 덮 으 시 며 땅 을 위 하 여 비 준 비 하 시 니
 12. 예 루 살 렘 아 여 호 와 를 찬 송 할 지 어 다 내
 16. 하 나 님 을 감 사 함 으 로 그 앞 에 나 가 며 주
 19. 임 재 앞 에 경 배 해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과 경배	다함께
Hymn	Altogether
설교	정용훈 목사
Sermon	Rev. Y. H. Jeong
제목기도	다함께
Prayer	Altogether
주기도문	다함께
Lord's Prayer	Altogether

오늘의 양식 Today's Word



네 손가락의 기적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라고 불리는 이희아 씨는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03cm의 작은 키에 양손 각각 두 개의 손가락만을 가진 그녀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뒤에는 어머니 우갑선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때 태아의 기형을 알게 된 우갑선 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딸을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며, 매일 딸의 두 손을 ‘틀립처럼 아름답다’ 라고 다독였습니다.

손가락 기형과 혈관 장애로 뇌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희아에게 피아노는 기적과도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혹독한 연습으로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였고, 너무 힘들어 울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게 딸을 다시 피아노 앞에 앉게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는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딸을 격려하며 이끈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은 결국 희아를 세계 유일의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우갑선 씨는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있나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늘의 양식” 에서

정용훈 목사 (Senior Pastor, Yong Hoon Jeong)
한세대학교 M. Div / Th. M / McComick 박사 (D.Min) 과정 중

Schedule - 성경통독 및 일정



2025년 전성도 성경 2독 (매일 구약 6장, 신약 2장)

2/10(월)	2/11(화)	2/12(수)	2/13(목)	2/14(금)	2/15(토)	2/16(주일)
삿 19~21 요 15~16	룻 1~4 요 17~18	삼상 1~6 요 19~20	삼상 7~12 요 21	삼상 13~18 행 1~2	삼상 19~24 행 3~4	삼상 25~30 행 5~6

날짜	2/9(주일)	2/11~13(화~목)	2/16(주일)	2/23(주일)
내용	여선교회 월례회 목회협력위원회	2월 십일조 새벽예배	남선교회 월례회	구역예배
장소	교회	교회	교회	교회

세 개의 제국과 네 명의 왕을 보필한 최고의 재상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단 1:21)

17세기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왕정시대가 저물어가고 왕에 의한 1인 통치가 아닌 의회에 의한 입헌군주제가 시작되었다. 왕은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왕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왕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나라의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일은 의회의 수장인 총리가 감당하게 되었고 역할과 권한도 강화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총리를 손꼽으려면 저마다 다른 인물들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현대의 입헌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지만 왕을 대신해 총리로서 제국을 다스렸던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 형들에게 팔려 히브리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창 41:41)과 전쟁 포로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세 개의 제국, 네 명의 왕을 보필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최고의 재상(宰相) 다니엘이다(단 2:48; 6:2). 다니엘 1장 21절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다니엘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왜 벗고 싶은 짐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지 그의 소명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1. 남유다의 멸망

성경에 느부갓네살로 기록된 네부카드레자르 2세(Nebuchadnezzar II)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유브라데강 하류 지방까지 정령했다(왕하 24:7; 렘 46:2~12). BC 625년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Nabopolassar)은 앗수르(앗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신바벨론 제국(BC 625~539)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제국의 기틀이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느부갓네살은 재임기간 동안(BC 605~562)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을 비롯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켰고 신바벨론은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과의 전쟁 이후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손에 넣었고 이스라엘을 여러번 침략했으며 남유다를 멸망 시켰다(BC 586). 예루살렘에 입성한 느부갓네살은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고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단 1:2). 유대인들은 네 번에 걸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것을 바벨론유수라고 한다. 1차는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과 왕족이 끌려갔고(BC 605, 단 1:1~6), 2차 때는 여호야긴 왕을 포함 방백들과 군사들 그리고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과 각 분야의 장인들 외에 일반 백성들까지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BC 597, 왕하 24:14).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급 정책을 펴던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왕이 되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솔로몬 성전까지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때 시드기야 왕과 다수의 백성들이 세 번째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네 번째는 BC 581년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에 의해 남아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비천한 사람들 약 2만 명 정도만 유다 땅에 남게 되었다(왕하 24:14).

2. 노예 소년의 성장

BC 605년 귀족출신인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인 1차 바벨론유수 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왕궁에서 일을 시키고자 했다(단 1:4). 마케도니아의 펠리포스 2세(BC 382~336)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BC 356~323)을 위해 알렉산더가 13세가 되던 때 당대 최고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들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위에 오른 뒤 바사(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제국을 완성해 위대한 대왕의 자리에 올랐다.

바벨론과 헬라 시대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그 당시 근동의 교육은 대부분 성인식을 치른 13세에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교육을 시켜 왕궁에서 쓰려고 유다의 소년을 잡아 왔다면 다니엘의 나이도 13세 쯤 되었을 것이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교육의 시간은 3년이 었다(단 1:5).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 식의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뀌었고(단 1:7) 전혀 생소한 언어 문화 학문을 익혀야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자비한 왕이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죽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다(왕하 25:7; 렘 39:6~7; 52:11).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술사들의 몸을 찢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왕이었다(단 2:5). 하지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단 1:8). 이것은 참으로 목숨을 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

3. 다니엘의 소명과 고레스 원년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꿈에 그리던 일이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다. 바사(페르시아)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 왔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다(스 1:1~3; 대하 36:22~23). 다니엘 1장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까지 관직에 있었고 그 후에 그만 두었다는 의미이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단 6:28), 수많은 권모술수가 난무했던 궁정에서 다니엘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거나 왕으로부터 신앙을 잃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며 네 명의 왕 밑에서 재상을 지냈던 예언자이며 정치가였던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이후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다.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레스가 유대인의 포로귀환을 결정할 때 다니엘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13세에 바벨론으로 왔다고 가정한다면 70년의 세월이 지나 다니엘의 나이는 83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세 개의 제국에서 네 명의 왕을 모시며 수많은 음모와 사자 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사슬에 메어 바벨론으로 잡혀오는 굴욕과 복받쳐 오르는 오열을 참아냈다. 마침내 예언되었던 70년의 시간이 차고, 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포로귀환을 칙령으로 반포하자 다니엘은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듯 뒤도 안 돌아보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말씀이 다니엘 1장 21절의 말씀이다. 이후 그는 다니엘 7장부터 정치가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간다.



바벨론 유적-이슈타르문(독일 베를린 박물관)



느부갓네살 왕